

오는 20일부터 진도시티투어 버스 운행



진도군이 주말 동안 보배섬 진도군의 관광명소를 구경할 수 있는 '진도시티투어' 버스를 20일부터 운영한다. '진도시티투어' 버스는 수도권 열

차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목포 등 전남 서남부권 관광객을 위한 여행상품으로 남약, 하당, 목포역을 경유해 진도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상품이다.

진도군, 수도권 열차 이용객 대상 토·일요일 운행 관광명소·문화예술체험 한 번에...인원 20명 제한

토요일 코스는 토요일속공원, 진도 개떼마파크, 윤립산방, 진도타워 등이며, 일요일 코스는 진도개떼마파크, 윤립산방, 송가인마을, 진도타워, 진도 명품관 등 진도의 관광명소와 문화예술 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요금은 성인은 7,000원, 초·중·고등 학생은 3,000원이며, 진도군 홈페이지와 진도군 관광안내콜센터(1588-9601)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시티투어 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관광거점별로 명소를 소개하고 관광지의 역사와 인문에 대해 재미를 가미한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진도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전 소독하고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안내, 탑승객 명부 작성, 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또 탑승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보배섬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더 편리하게 관광지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힐링 로드로 오세요"

장흥덤 둘레길·우드랜드 말레길·천관산 동백숲길·보림사 비자나무숲길

장흥군은 2021년 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사람들에게 봄의 활력과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장흥군 힐링 로드'를 추천한다.

□ 장흥덤 둘레길 = 장흥군 유치면에 자리한 장흥덤 둘레길은 신흥생태습지에서 시작하여 유치자연휴양림과 밤재터널 등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26km의 휴양 산책 코스이다. 지역 주민과 트레킹족들의 삼림욕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곳은 산악자전거, 트레킹, 스키 동호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에는 둘레길 주변에 개복숭아 나무 1,800그루를 식재하여 봄이면 은은한 향을 내는 연분홍색 복사꽃길이 만들어진다. 봄을 맞아 장흥덤 둘레길을 걸으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우드랜드 말레길 = 말레길에서 '말레'는 장흥의 대청이라는 뜻으로, 편백숲 우드랜드 치유의 숲이 가족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쾌한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울창한 편백나무에 둘러싸인 말레길은 '무장애 데크길'이라고 불린다. 그 이름처럼 정상까지 계단이 하나도 없는 데크길로, 누구든지 편하게 숲길을 거닐 수 있도록 한 길은 배려심이 돋보인다.

주변에는 사계절 푸른빛을 뽐내는 싱그러운 녹차밭이 함께한다. 녹차밭을 배경으로 맑은 바람을 쐬면서 억불산 정상으로 향한다.

우드랜드 입구부터 시작해 말레길을 따라 억불산 정상까지는 총 3.8km이다. 거리가 짧은 편이기에 편백 톱밥이 깔린 길을 걸어나 편백숲 흔들림자에 앉아 그늘을 타거나 하며 여유를 만끽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천관산 동백숲길 = 천관산 동백숲은 10~200년생 동백나무 2만여 그루가 자생하는 지역으로 20만㎡의 압도적인 면적을 자랑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 동백군락지라는 명성답게 봄이면 눈부시게 개화하는 동백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봄을 맞아 붉은 꽃망울을 터트린 동백은 초목 잎사귀들 사이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숲에 들어서면 뽀뽀이 자리잡은 짙푸른 동백나무와 탐스러운 동백꽃에 시선을 빼앗겨 잠시나마 일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다. 또한 청명한 하늘과 어우러지는 산세의 맑은 울음소리는 일상생활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 준다.

□ 보림사 비자나무숲길 = 가지산 자락에 고즈넉이 들어선 보림사는 보물을 품고 있다. 바로 절 뒤편에 자리한 비자나무숲이다. 비자나무숲은 수령 300년이 넘는 비자나무 500여 그루와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즈넉한 비자나무숲 사이에는 시냇물처럼 산책로가 나 있다. 숲이 깊어 햇빛도, 소리도 침범하지 못하는 비자나무숲길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개강

마케팅 전략 수립·유튜브 홍보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강진군은 지난 16일 농특산물 마케팅대학 개강식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특산물 마케팅대학은 농어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개설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 강의를 맡은 이숙형 삼농연구소 소장의 '최근 농업 경영 트렌드 연구'를 주제로 시작한 농특산물 마케팅대학은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했다. 또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농가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판매방법을 제시하여 수강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올 12월까지 마케팅의 이해, 최신 유통 트렌드, 귀농인 유튜브의 농수산물 홍보 방법, 선진 농장 현장 학습 등 총 8강으로 진행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김치수출단지 조성 '쟁걸음'

세계김치연구소 방문·지역 R&D센터 유치 협의

해남군이 해남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치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강상구 부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은 16일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 지역 R&D센터 유치 협의와 김치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2010년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김치 관련 연구 개발 등 김치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남군은 김치 수출단지 내에 실증·분석 등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 기능을 갖춘 지역 R&D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김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남 김치 표준 레시피 개발 및 품질 규격화, 상품화를 위한 관능 평가 및 기술이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항도 협의했다. 이와함께 군은 4월, 전라남도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김치 가공산업 관련 대기업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치 수출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남군 김치 수출단지는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2지구내에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해남의 특화된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기동취재본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출범

38개 단체장 참여...신우철 완도군수 초대 감사로 선출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 시군구 남북 교류협력 포럼이 지난 3월 16일(화)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전국 시군구 남북 교류협력 포럼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지난 1월부터 발 빠르게 구성을 추진하였다.

남북 교류협력 포럼은 남북교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남북 도시 간 교류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협의기구다. 임원진으로는 연태영 수원시장

상임 공동대표, 광주시 남구청장이 사무총장, 신우철 완도군수는 감사로 선출됐다.

창립총회에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서호 통일부 차관이 초대 인사로 참여하였으며, 완도군을 포함한 10여 개 자치단체는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화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들과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함께하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통일토크가 진행되었다.

완도=이민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